



달리는 여성

옷감에 「패션」을 담아

토텍스社 텍스타일 디자이너 **李美京씨**

『현재 국내 직물제품들은 中國 등 東南亞 국가의 低價 品 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직물 디자인의 기술개발로 직물 값을 낮추어 디자인을 도안

하는 텍스타일 디자이너 李美京씨(29). 그는 『섬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텍스타일 디자인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텍스타일 디자인 전문용 업체 토텍스社의 디자인

화사한 무늬 색깔로 섬유부가 가치 높아

실장인 李씨는 이분야의 몇몇 안되는 11년 경력의 베테랑 디자이너.

11년경력의 베테랑

李씨는 무역회사 등 국내 외업체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고객들이 원하는 무늬 색상을 찾아 디자인을 해준다.

李씨가 디자인을 하는 대상은 옷감 스카프 넥타이 커튼 시트커버의 원단 등으로 거의 모든 직물.

李씨가 가장 자신이 있는 분야는 꽃무늬라고. 『직물디자인이라고 해서 디자인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니다. 생산과정에서 기계에 의해 디자인이 직물에 찍히는 것을 감안, 비단의 경우 섬세한 디자인, 울에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꽃무늬 가장 자신있어 李씨는 『디자인에는 직물의 종류뿐 아니라 직물이 수출될 지역의 유행과 문화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10년이 넘게 이 일을 하고 있다.』

『국내 섬유산업이 질보다 양위주로 발전하다보니 직물디자인의 중요성이 도외시됐으나 최근 패션산업이 발달하면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李씨는 말했다.

실업고 졸업후 入社

여러회사를 거쳐 3년전부터 토텍스에서 일하고 있는 李씨는 이회사가 운영하는 텍스타일디자인화원에서 강의도 맡고 있다.

〈白承勳기자〉